

## 특별인터뷰 ... 이희용 포천예총 회장

# “文化藝術 사랑이 故郷사랑이다”

### 문화예술 작품 선정 위한 협의체 문화예술위원회 구성해야

#### ▶취임 후 활동 소감은?

그동안 형식적인 예술활동을 해 왔다면 취임이후 실질적인 예술인들의 참여와 지역모티브를 주제로 한 활동추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다. 예를 들면 공연예술단체가 연합하여 작품 '우리소리 포천의 소리'를 무대에 올렸고 포천메나리 시연회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연극분야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창작작품을 공연한 바 있으며 무용은 전국무용제에 최초로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 ▶포천시립민속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견해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나 이슈를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공연으로 형상화하는 일이 중요할 때도 불구하고 원활치 못해 지난 5년간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역사성 담보로 실질적인 표현의 정체성, 합축성 공연은 단 한 차례로 하지 못했다. 외부전문가를 영입

함에 있어 근거 없는 작품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공연하여 지역예술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무의미하게 집행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에 반해 지역예술가들에게는 지원이 인색한 과정에서 회생과 봉사위원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포천문화아트홀에 접수한 바 있다. 차후의 결과는 지켜보고 있다.

#### ▶예총의 역할은?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예술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포천지역의 전 분야에서 창작정신이 청소년과 시민과 모든 단체와 의견을 합쳐서 새로운 포천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합에 있어 근거 없는 작품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공연하여 지역예술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무의미하게 집행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에 반해 지역예술가들에게는 지원이 인색한 과정에서 회생과 봉사위원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포천문화아트홀에 접수한 바 있다. 차후의 결과는 지켜보고 있다.

#### 각하냐?

공연예술의 경우, 연극, 무용, 국악, 연예인 협회 회원들이 단합, 협동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의 경우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작품도 많이 내놓고 등단작가도 배출하고 있으며 미술분야의 경우도 상당수 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등 전 분야에서 경기도 31개시군중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예술활동과 시민과의 관계는?

그동안 단절된 상태였으나 이제 모든 회원 단체들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예술활동에 참석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작품, 포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작품, 지금 꼭 해야 할 정신적, 학문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품을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위원회를 조직해서 필요한 사업과 작품을 선정해 시에서 꼭 지원할 것은 반드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서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사업예산을 분담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 ▶포천시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포천메나리와 풀피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에 인색하다. 인근 양주시의 양주별산대놀이를 벤치마킹하기를 바란다. 전수회관도 규모 있게 신축하여 정가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우리지역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선출직 리더에게 바라는 사항은?

문화예술을 모르는 정치인은 자



이희용 포천예총 회장

기가 처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기업의 메세나 운동을 이끌어 내는 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문화를 살리는 예산지원 문제도 선출직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한다. 특히 고향을 사랑한다는 것이 문화예술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 ▶포천시 예총 회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은?

포천을 가장 사랑하는 예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사람들이 최후에 묻히고 싶은 곳은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지

역에서 살고 있다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라는 법은 없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 ▶포천시민에게 바라는 사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포천을 사랑하는 사람은 포천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듯이 포천을 사랑하는 시민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 ▶포천신문사에게 바라는 사항은?

포천신문은 지역언론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기사를 정확하고 수준 높게 보도하고 있다. 창간 당

시 문화예술면을 칼럼면에 배려하여 포천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우가 높았다고 생각한다. 포천의 문화예술을 잘 알려 포천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 포천에 있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포천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메나리 獨自的 첫 시연회

### 시민의 위상과 자긍심 향상에 크게 기여



포천메나리보존회(회장 류태균)는 10월12일 오후3시 포천시 가산면 경북중학교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첫 공연으로 의의가 있으며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승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

해 실시했다. 만월사불놀이 공연, 포천메나리 시연회, 오폐수리 공연, 송강회에 술단 공연, 한동염무용단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해 가산면민은 물론 포천시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오늘 시연

회를 통해 포천의 전통문화가 활짝 꽃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지역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활동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연회를 준비하신 포천메나리보존회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포천의 자랑거리이자 우리 시민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용 포천예총 회장은 "오늘 처음으로 포천메나리 시연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독자적인 공연에 대한 아쉬움이 해소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공연을 준비하신 류태균 회장님과 이영재 예능보유자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문화재단,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예총,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해 가산면민은 물론 포천시민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創刊 19周年 기념식 준비 임원회의에 위임

###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82차 정기회의 개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찬)는 10월17일 오후7시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8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나근수 부위원장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 반갑다"며 "안건도 처리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도로공사중에서도 회의장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고생이 많으셨다"며 "노인 명예기자단 발족식과 창간 19주년 기념식, 회의안건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근수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창간19주년 기념식과 노인 명예기자단 발족식에 따른 예산지원의 건을 임원회의에 일임하기로 하고 단합대회 개최의 건은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구독자 확보 및 광고 협조 및 불우이웃돕기 참여 및 주변에 홍보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대상 심가연 · 박범철 · 허성찬 · 이지은 수상

### (사)대한웅변인협회 포천시지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사)대한웅변인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최정현)는 10월18일 오후2시 여성회관에서 제3회 포천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포천시가 주최하고 (사)대한웅변인협회 포천시지부가 주관했으며 포천시의회와 경기도포천교육청이 후원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포천시장상) ▶심가연(송우병설) ▶박범철(포천초3) ▶허성찬(왕방초6) ▶이지은(송우중1) ▶최우수상(포천교육장상) ▶류승민(송우병설) ▶엄대현(청성초3) ▶최다원(포천초4) ▶이유진(내촌중1) ▶오수상(시장상) ▶이진수(포천병설) ▶윤수철(태봉병설) ▶이주호(추산초3) ▶손동우(태봉초2) ▶박준호(태봉2) ▶박진영(추산6) ▶조우영(추산초3) ▶최병찬(영중중1) ▶오수상(포천시의회의장상) ▶김다린(신애어린이이집) ▶김진석(신애어린이이집) ▶김수빈(송우초1) ▶이재현(추산초1) ▶조홍진(추산초5) ▶장려상(경기도본부회장상) ▶황준석(태봉병설) ▶이민규(송우병설) ▶양예원(일동병설) ▶김수현(예일어린이이집) ▶이아연(태봉초2) ▶전진아(일동초3) ▶김범수(영평초3) ▶김민정(포천초3) ▶정주영(포천초4) ▶장찬영(영평초5) ▶안형준(왕방초4) ▶김지호(왕방초4)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축협 마홀촌 (카프파워, 주니어파워) 사료 육성우 부분 석권!

## “2008년 한국홀스타인 품평회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고품질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축협은 1964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우리의 식량기반인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축협은 WTO, FTA 등 세계적인 수입자유화 추세 속에서 포천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고의 고품질 사료 공급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08년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육성우 부분을 석권하는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축협은 양축가에게 최고의 사료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축산업협동조합



1부 최우수 소낙비목장 최민호



1부 우수 람보목장 김상수



4부 주니어 챔피언(4부 최우수) 갈골목장 장동찬



2부 최우수 목방목장 정윤호



2부 우수 초초목장 이영구



4부 우수 태평목장 안무복



6부 우수 노곡목장 최명희



6부 우수 초초목장 이영구



9부 우수 천궁목장 최재천



12부 최우수 목방목장 정윤호



마홀촌 사료주문전화 ☎ 031)534-0042~4